

# 한국불교, 亞 네트워크 구축 '시동'

## 실천불교승가회, 캄보디아에 교육·복지시설 BWC 준공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캄보디아 사업팀이 BWC를 준공함에 따라 체계적인 해외 NGO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월 18일 준공한 BWC 전경.

복지·구호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아시아네트워크의 서막이 캄보디아 사업팀에서 울렸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립)는 2월 18일 캄보디아 제2도시 시엠펙 인근에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과 초등학교가 들어선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준공식을 열었다.

2002년 12월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3년 3개월만의 성과다. 이로써 한국불교는 일회성에 머물렀던 그간의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3월 5일 첫 삼을 뜨는 조계종 스리랑카부처자온과 연결되는 한국불교 아시아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BWC 준공은 의미가 깊다.

준공식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 등 한국에서 1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캄보디아 시엠펙을 찾았다. 현지에 파견돼 불사를 지휘하는 부경 스님이 검게 탄 얼굴로 대표단을 맞았다.

대표단이 BWC를 찾던 날,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기였지만 장대같은 비가 쏟아졌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좋은 징조라고 입을 모았지만 대표단은 준공식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준공식이 시작되기 직전 비는 그쳤다. 하늘은 캄보디아인들과 대표단을 감동시켰다.

캄보디아 정부가 30년 동안 무상제공한 1만 2천여평의 부지에 지어진 BWC에는 총12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교사(校舍)와 도서관, 아동숙소, 워크숍룸, 스텝룸, 식당, 게스트하우스가 운동장을 중심으로 빙 둘러져 있다. 인근에서 이보다 좋은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

님은 "보육원과 교육시설을 캄보디아 지역에 확대 건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양국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축사로 성관 스님을 거들었다. BWC사업이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6월께 개원되는 보육원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연설했던 1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한다. 한명이라도 슬가락을 줄여야 할 처지인 캄보디아인들은 보육원에 아이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9월이면 원내에 6학년급의 초등학교가 문을 연다. BWC는 충분한 매력을 지녔다. 게다가 향후 유치원과 중학교, 직업훈련원이 들어서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사업팀=박봉영 기자

### Interview BWC 건립 이끈 성관 스님



"30년 후에는 라오스, 미얀마 등 인근 동남아시아에도 한국불교의 자비원력이 전파되리라 생각합니다. BWC를 이를 위한 모델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2월 18일 열린 보육·교육시설 BWC 준공식에서 포부를 밝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성관 스님(사진). 캄리핀드의 아픔을 간직한 캄보디아에 80만달러(약 8억원)를 투자해 체계적인 해외 NGO활동의 첫 길을 열었다.

이날 준공이 있기까지 성관 스님이 쏟은 땀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얼다섯 차례 이상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면서 수도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캄보디아 부총리, 외교부, 교육부, 사회복지부 장관 등 정부대표자들을 설득하고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BWC공동위원회는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물이다.

"건립을 시작한 뒤에도 농업을 기반으로 한 캄보디아와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들

### 유치원·직업훈련원 확충 계획

한국간 문화의 차이로 인해 모험에 가까웠지만, 결국 해냈어요. 이전 캄보디아 제일의 시설로 키우는 일이 남았습니니다."

성관 스님이 처음 캄보디아를 찾은 것은 1996년이었다. 앙코르와트를 대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이렇게 웅장하고 훌륭한 문화를 같은 동양인인 이들이 일궈냈다는 자긍심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원달러(One Dollar, 원)에 커피를 물리는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것이 BWC의 출발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전통문화와 사상을 잃어버린 문화제국주의의 피해자였어요. 캄보디아인들에게 우리가 당한 아픔을 똑같이 안겨선 안됩니다. 크메르문명을 일구었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성관 스님은 BWC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보육원과 초등학교 외에도 유치원과 중학교, 직업훈련원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으로 키우고 나아가 캄보디아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 달라이 라마의 보이지 않는 힘

세계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인물이 달라이 라마이고, 전체 뉴스 중 그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최근에 전해진 달라이 라마 관련 뉴스 세 가지는 성격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로이터 통신의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달라이 라마 주판의 칼라차크라(Kalachakra) 법회에 "티베트에서 온 순례자 만여 명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순수 중국인 200여명이 동참해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이번 법회가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과 중국인들의 다람살라 방문을 공식으로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의 정확한 이

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위 기사를 송고한 린드세이 벅 기자의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대표단이 중국 정부와 비밀회담을 하러 베이징에 도착했다. 물론, 티베트 망명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논평을 거부하고 있지만 비밀 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2월 20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분쟁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믿음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한 이스라엘 정부의 정치적 목적은 "완전 독립이 아니라 티베트의 자치를 요구한다"는 달라이 라마의 정책이 그들의

## 갈등과 분쟁 없이 이어지는 지구촌 압제자마저 감동케 한 '자비와 관용'

유와 배경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3년 이래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도 여행 제한이 점차 완화되어 온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관련 연구기관인 '중국 티베트 연구센터(中國西藏研究中心)' 소속의 한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에 동참하라고 권하기도 않지만 참석을 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중국 정부가 아니라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다수 티베트인들에게는 여전히 여권 발급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중국인 순례자를 포함하여 이번 칼라차크라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11일 동안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전 과정에 진지하게 참여하며 달라이 라마의 축복을 받았다.

1억 명이 넘는 불교도, 그 중에서 760만 명 정도가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정부가 취한 인도 여행 완화 조치는, 중국 내 무슬림들의 메카 성지 순례 허용과 더불어

대 팔레스타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을 것이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도 달라이 라마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어떻게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라는 이스라엘 기자의 질문을 받은 달라이 라마는 한참을 망설임이 "어렵겠지요. 하지만 폭력적인 수단을 쓴다면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과가 분명하지요."라고 대답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세계 초강대국 문턱에 들어서서 중국 정부가 비밀 회담을 열게 하며 압제자 중국인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는 유대인들을 감복시키는 달라이 라마의 힘은 바로 '자비'와 '관용'이다. 이는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가 주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 자유기고가

# 靈木之尊

## 7천년된 靈木(영목)의 신비함을 한 알 한 알 부처님 염주에 담았습니다!

사업번창, 소원성취, 합격, 승진 기원, 무병장수 부처님 전에 영혼이 담긴 靈木염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지니고만 다녀도 액운을 물리칩니다!

靈木(영목)이란 轉木(신목)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四川省 岷江 유역에서 발견된 약 7천년된 고목이 홍수, 지진 등 자연변화를 거쳐 전후속에서 문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모양이 기이하지만 나무재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다. 靈木은 지구상에 한곳밖에 없는 매우 희소한 나무로 영원히 재생하지 못하므로 더욱 귀귀함을 느끼는 것이다.

靈木의 은은한 향은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우며 혈통을 도운다고 하여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靈木을 소유함으로써 富(부)를 얻고 무병장수 한다고 하며 생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중국 四川省 '영목예술수집센터'에서는 '고궁박물관', '중국수집가협회', '중앙미술학원', '사천사회과학원' 등 20여명의 저명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靈木의 과학성, 학술성, 문화성, 예술성을 전문 연구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靈木은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약 2m 정도의 조각품을 현지에서도 수 억원에 호가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법인(法印)과 염주를 만들어 지니면서 잠신을 깨끗이 정기를 맑게 한다고 하여 귀하게 여겼으며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여 부적(符籙)처럼 소중하다고 한다.

불기(佛紀)2250년 석탄일(釋誕日)을 맞아 국내 최초로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佛子)님 및 분께 현지에서 靈木으로 수(手) 제작한 백관 염주와 단주를 바칩니다.

靈木 염주로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빌어 만사행통하시고 무병장수,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靈木으로 佛事를 하시거나 특별한 수 공예품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도 해드리며 중국 현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靈木佛事推進協會(영목불사추진협회) 대표전화 02)3445-8856